

## “금속노동자, 민중총궐기 · 대선 진보진영 단일화 실현하자”

###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2022년 시무식 ... 12기 금속노조 본격 시작

금속노조가 1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시무식을 열고, 노조 12기를 본격 시작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사무처는 2022년을 노동자·민중의 새 세상을 건설하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이날 오전 전태일 열사 묘소 앞에서 연 민주노총 합동시무식에서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진보와 조국통일, 노동해방을 위해 산화하신 열사들 앞에서 노동해방의 새 세상으로 달려가겠다는 다짐으로 2022년을 시작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재벌독점체제가 공고화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직고용 판결이 났지만, 불법파견은 여전하다”라며 “재벌



은 또 다른 차별과 착취의 상징인 자회사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자.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20일 불평등을 갈아엎기 위해서 총파업을 단행했다”라면서, “금속노동자가 1월 15일 민중총궐기로 힘차게 달려가자. 금속노동자가 진보진영 단일화를 반드시 실현해 3월 9일 대선판을 보기 좋게 흔들어보자”라며 투쟁 결의를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합동시

무식에서 “지난해 우리는 총파업 깃발을 들기 위한 해 동안 무던한 애를 썼다. 코로나 계엄령 상황에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목숨을 내기 위한 해 동안 치열하게 투쟁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2022년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실제로 쟁취하는 정치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간접고용을 용인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별하는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을 조직하고, 노동중심 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2022년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올해 투쟁 방향을 밝혔다.

민주노총 합동시무식을 마친 금속노동자들은 마석 모란공원을 돌며 금속노조 열사들을 찾아 참배하고, 2022년 투쟁을 결의했다.

# “대법원, 자본 눈치 보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신고 촉구 ... 넘치는 증거·판례까지 있는데 7년째 법원에

한국지엠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법부가 7년째 붙들고 있는 한국지엠 불법파견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1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원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판례와 판단 근거가 충분함에도 사법부가 판결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김경학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동안 한국지엠에서 1천여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원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2016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하는 다섯 명의 동지가 있다”라며 “이토록 빠른 판결을 왜 미루는지 모르겠다. 누구를 위한 사법기관인가”라며 대법원의 최종심 지연을 규탄했다.

이영수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대법원이 판단할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거짓말이다”라면서 “자본은 2003년부터 20년 가까이 제조업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판례가 쌓여있다. 대법원은 자

본 눈치 그만 보라”라고 일갈했다.

노동조합 등 노동계는 대법원이 지나치게 자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범진 변호사는 “사법부가 재벌사 관련 판결에서 차일피일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미루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라면서 “시급한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실현을 외면한 채, 결국 사측 편들기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57명은 7년 전인 2015년 1월 법정투쟁을 시작했다.

2018년 1심, 2020년 6월 2심에서 노동자들이 이겼다.

## 금속노조,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촉구 결의

4일 노조 1차 중집 성명서 채택 ... 15일 전국노동자대회·민중총궐기 총력 조직

금속노조가 1월 4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2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진보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금속노조는 공동대응 기구가 대선 진보 단일후보를 결정하면, 19만의 힘으로 대선투쟁의 최선봉에서 노동자·민중을 위한 선거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조는 2일 채택한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성명’에서 “대선 70여 일을 앞두고 노동의제가 사라졌다. 노동자들은 산업전환 이름 아래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며, 민중의 삶은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은 코로나 재난 등 불평등을 끝장내고, 노동자·민중이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희망의 출발점이다”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각 진보정당, 단체는

선출방식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말고, 오로지 노동자·민중만 바라보고 결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각 조직은 통 큰 결단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라”라고 당부했다.

노조는 이날 중집에서 1월 15일 13시 30분 서울에서 여는 ‘보수양당체제 타파, 불평등체제 청산, 자주 평등사회 대전환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 성사를 위해 총력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확대간부와 참가희망조합원을 조직 방침으로 확정했다.